땅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㊳ 부처님의 신통

"그대들은 부처님이 여섯 가지 신통이 있어 불가사의하다 하나니 그렇다면 일체 모든 천신이나 신선, 아수라와 힘센 귀신도 신통이 있으니 이들도 부처란 말인가?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 저 아수라들이 제석천왕과 전쟁을 하여 패배하고, 팔만사천 권속을 거느리고 연뿌리 속 실구멍으로 들어가 숨었다 하니 아수라도 성인인가? 내가 이러한 예를 드는 것은 모두 전생의 업으로 얻은 신통(業通)이거나 어떤 조건에 의지한 신통(依通)일 뿐이니라. 무릇 부처님의 6신통은 그런 것이 아니니라. 색(色)의 경계에 들어가도 색에 미혹되지 않고, 소리(聲)의 경계에 들어가도 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맛(味)의 경계에 들어가도 맛에 미혹되지 않고, 촉감(觸)의 세계에 들어가도 촉감에 미혹되지 않고, 의식의 대상(法) 경계에 들어가도 의식의 대상에 미혹되지 않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섯 가지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의 육진이 모두 실체가 없어 비어 있는 모습(空相)인 것을 통달하였느니라.

이 의지함이 없는 도인은 얽어맬 수 없는 것이니라. 비록 오온의 몸에 번뇌가 있으나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이 바로 신통(地行神通)이니라."

선(禪)을 자기 주체 확립의 수행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견성(見性)을 자기 정체 파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장에 와서 임제는 신통의 이야기를 꺼내 수행의 완성이 신통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주고 있다. 이른바 육신통(六神通)을 발휘하는 것이 부처가 아니라 한다. 신통이란 보통의 상식적인 경계를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말한다. 초능력을 발휘하여 사람을 놀라게 하는 비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깨달음 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뜻이다.

물론 석가모니부처님도 신통력을 나타내 보인 적이 있다. '천불화현'이라는 기적을 보인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다. 슈라바스티의 많은 사람들과 외도들 앞에서 몸이 공중으로 솟아 걷기도 하고 앉고 눕기도 하다가 입에서 불을 토하고 항문에서 물을 뿜어냈다고 한다. 또 망고의 씨를 땅에 떨어트려 이내 싹이 나자라 큰 나무가 되어 천 개의 꽃이 피었는데 그 속에서 부처님이 화현했다 하고, 천 개의 꽃잎이 달린 큰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당에서 솟아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설화는 〈근본설일체유부비야나잡사〉와 자타카, 법구경주석서 등에 소개되어 있다. 인도 슈라바스티 기원정사 근처에 천불화현터라는 유적지가 있어 큰 벽돌 더미의 탑이 남아 있다. 이곳에서 도리천으로 올라가 생모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을 했다 한다. 그 내용이 〈지장경〉이다.

부처님이 천상에 올라가 설법을 했다는 이야기도 〈화엄경〉이나 〈범망경〉 등 여러 대승경전에 나오는데 이는 법신의 작용인 선정의식의 경계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신통은 외도들도 있다는 말을 하면서 부처는 신통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선(禪)은 초월적인 신비한 능력 따위에 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육진경계에 미혹되지 않고 바깥 경계가 공(空)한 것을 통달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아수라가 제석천에 패해 연뿌리 속 실구멍으로 들어가 숨었다는 말은 〈잡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중국의 방온(龐蘊)거사가 남긴 유명한 송구가 있다.

日用事無別 일상의 생활이 별것 없다네 / 唯吾自偶諧 오직 내 스스로 어울리면 되는 것 / 頭頭非取捨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것이고 / 處處勿張乖 여기나 저기나 틀어지지 않을 뿐

朱紫誰爲號 누가 벼슬 높다고 귀하다 하는가 / 丘山絶點埃 언덕이나 산이나 티끌경계 아니라네 / 神通竝妙用 신통과 아울러 묘용이여 / 運水及搬柴 물 길어오고 땔나무 해 오는 것이라네

마지막 구절 물 길어오고 땔나무 해오는 것이 임제의 지행신통(地行神通)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오온(五蘊)은 無我"



세상 속 경전읽기

㊳ 무아상경(無我相經)

붓다께서 5비구에게 〈전법륜경〉을 처음 설하신 후, 두 번째로 설한 경은 〈무아상경(無我相經, Anattalakkhaṇa Sutta, SN 22.59)〉, 또는 〈오비구경(五比丘經, 잡아함경 권2 34번)〉이라 불린다. 이 경은 한 마디로 오온[五蘊,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 무아(無我)이고 무상(無常)하므로 고(苦)에 이르게 되고, 이 무상, 고, 무아를 확실히 깨달아 고멸[苦滅, 해탈(解脫), 열반(涅槃)]에 이르게 됨을 설한 것이다. 설법장소는 〈전법륜경〉과 같이 바라나시의 이시파타나(예언자의 숲) 녹야원이고, 설법 대상 역시 같은 5비구이다.

좀 더 부연하자면, 오온[색수상행식]은 무아[無我]이다. 만약 오온이 나[我]라면, 이 오온은 고통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이 오온을 주재(主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온은 무아(無我)이므로 고통에 이르고, 누구도 오온을 주재(主宰)할 수 없다. 오온은 무상하여 고통이고, 무상하여 고통인 오온은, '내 것(mine), 나(I), 내 자신(my self)이다'라고 여길 수 없고, 오온은 '내 것(mine), 나(I), 내 자신(my self)이 아니다'고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알면, 오온에 대해 소원(疏遠)해지고[염오(厭惡)를 느끼고], 열정이 시들고, 해탈(解脫)하고, 해탈지견(解脫知見)이 생긴다. 따라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범행(梵行)을 완성했으며, 대장부의 할 일을 마쳤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밝게 알게 된다.

"비구들아, 몸[色, form](과 수상행식)은 무아[無我, not-self]이다. 만약 몸(과 수상행식)이 나[我, self]라면, 이 몸(과 수상행식)은 고통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이 몸(과 수상행식)에게 '내 몸아! 이렇게 되거라, 이렇게 되지 말거라'라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몸은 무아(無我)이므로 고통에 이르고, 누구도 '내 몸아! 이렇게 되거라, 이렇게 되지 말거라'라고 마음대로 부릴 수 없다.

(세존) 비구들아, 네 뜻(생각)에 어떠하냐. 몸[色, form]은 영구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5비구) 일시적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 자 그렇다면 일시적인 것은 고통이냐 아니면 즐거움이냐? (5비구) 고통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 그렇다면 일시적이고, 변할 수밖에 없어 고통인 것을, '이것은 내 것(mine)이다, 이것은 나(I)이다, 이것은 내 자신(my self)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5비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세존) 느낌[感受作用, 受 feeling], 표상작용[表象作用, 想 perception], 의지작용[意志作用, 行, determinations], 인식작용[識, consciousness]은 영구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5비구;) 일시적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 자 그렇다면 일시적인 것은 고통이냐 아니면 즐거움이냐? (5비구) 고통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 그렇다면 일시적이고, 변할 수밖에 없어 고통인 것을, '이것은 내 것(mine)이다, 이것은 나(I)이다, 이것은 내 자신(my self)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5비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따라서 비구들아! 과거, 미래 또는 현재에 생겨난 어떠한 몸[色, form](과 수상행식)이라도, 그것이 크든 작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열등하든 우수하든, 멀든 가깝든, 올바르게 이해하여 '이것은 내 것(mine)이 아니다, 이것은 나(I)가 아니다, 이것은 내 자신(my self)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알아야 한다.

비구들아, (진리의) 설법을 들은 제자가 이와 같이 알면, 그는 오온에 대해 소원해진다. 소원해지면, 열정이 시들고, 열정이 시들면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졌다는 앎이 생긴다. 그는 '더 이상 태어남[生, birth]이 없고, 성스러운 삶을 완성했으며, 대장부의 일을 마쳤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밝게 안다."

〈The Not-self Characteristic (Anatta-lakkhana-sutta SN 22.59) translated by Ñanamoli Thera〉에서 경주 번역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㊹ 닦음의 길 24

공양도 수행이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날에도 흔히 쓰이고 있는 인사말이다. 몇 해 전에는 모 방송국에서 '식사하셨어요?'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하였다. 밥 한 끼 먹는 것이 큰 일이었던 배고픈 시절의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 말 대신 '공양은 하셨습니까?'라는 독특한 표현을 쓴다. 그래서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공양(供養)이란 밥 먹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대중들이 모여서 발우(鉢盂)에 음식을 담아 함께 식사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를 대중공양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안거 때 선원에서 정진하는 수좌들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렇다면 밥을 먹는 것을 과연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양이란 본래 누군가에게 음식이나 옷, 약 등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布施)의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공양의 대상은 붓다와 가르침, 승가 삼보(三寶)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붓다에게 바치는 공양을 불공(佛供), 불법(佛法)에 공양하는 것을 법공(法供), 승가의 주요 구성원인 승려에게 바치는 것을 승공(僧供)이라고 한다. 이렇게 삼보에 공양을 하는 것을 불자들은 공덕을 쌓은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 공덕으로 좋은 과보를 얻게 된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양의 전통은 붓다가 활동하던 시기의 탁발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출가한 사문들은 걸식을 통해 식생활을 해결하였는데, 이를 제공한 이들은 주로 재가불자였다. 사문들에게 걸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깨침을 향한 수행으로써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몇 가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었다. 예컨대 하루에 한 번 오전에만 탁발을 해야 하며, 일곱 집 이상을 다니면 안 되었다. 또한 탁발하는 집이 부유한지 가난한지, 공양 받는 음식이 어떤 종류인지 가려서도 안 된다. 그저 주는 대로 먹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탁발은 하심(下心), 즉 아상(我相)을 내려놓는 매우 효과적인 수행이었다. 얻어먹는 사람이 어떻게 우쭐하는 마음을 낼 수 있겠는가.

한편 사찰이 생기고 교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공양의 대상도 수행자 개인에서 대중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우리가 사찰에서 먹는 음식은 누군가 정성껏 보시한 공양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당연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먹을 것을 보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인연들로 이어진다. 밥을 먹기 전에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있습니다. 정성이 깃든 이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청정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공양게(供養偈)를 합송하는 이유다.

음식은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 수행이 되기도 하고 배고픈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태양과 구름, 비, 바람과 같은 대자연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를 길러낸 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 담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양은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거나 입맛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상을 인식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수행이다. 사찰에서 음식 남기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도 공양 자체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청정하게 살기 위한 실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밥 한 톨도 남기지 않는 불교의 공양 문화가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 선물이다.

발우에 담긴 음식을 깨끗하게 비운 후에는 대중들이 합장을 하고 "이르는 곳마다 부처님의 도량이 되고 베푼 이와 수고한 모든 이들이 보살도를 닦아 다 같이 성불하여지이다"라고 합송을 한다. 공양게에는 대중들의 한 끼 식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이들이 열심히 정진하여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담겨있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면 공양하는 장소가 집이든 식당이든 관계없이 그곳이 바로 부처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도량이 될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모산 성주사

조 실 서해 흥교

주 지 법안

신도회장 보리 김이순

불모의 품속에서 피워온 천년의 향기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천선동)

Tel 055)262-0108~10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음산 불곡사

주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주문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55

Tel 055)282-7402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은하사

회주 서림 대성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일동

부설

서림불교대학



경남 김해시 신어산길167

055)337-0101~5